


人
스토리
스물한번째



나의
인간의
원조
인

사회보장특활지원구역사업
천권도서관 人 스토리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와 베품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잡아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천 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 억		마 음
7	김동달	33
9	김선화	35
11	김은숙	37
13	박귀조	39
15	박명숙	41
17	박신숙	43
19	우병팔	45
21	우정현	47
23	이재선	49
25	정귀자	51
27	정은서	53
29	황오녀	55
31	황청자	57

기 억

지금 숨 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의 삶.

현재의 삶은 항상 시간의 굴레로 빨려 들어가,

어느새 과거가 됩니다.

결국 삶은 기억으로 남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왼손에 기억의 한 조각을 새겨보기로 했습니다.

기억하고 그려내고 말하며 '나의 왼손'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보석 같은 오늘의 그림은,

이제 또다시 우리의 기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민
동
민
딱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렸어요.

저 처칠 수상의 빅토리라고, 승리라는 의미, 그겁니다.

처칠 수상을 좋아하냐구요?

어, 좋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잖아.

그리고 담배를 피웠는데,

시가를 물고 목욕하는 사람인데 구십 한 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담배하고 수명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담배 피워도 돼.

김
선
화

얼마 전에 우리 행복나눔봉사대에서 나들이를 갔는데,
울산 출렁다리를 갔습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우리 일 년에 한두 번씩 나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가 이번에 모처럼 나가가
정말 재밌게 잘 놀고 왔습니다.

요는 우리 담당 리호 선생님이요,

요거는 저기 재화 선생님이요. 호호호!

김은숙

저는 어릴 때 추억이라고는
 엄마가 봉숭아 물들여준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구요.
 지금 현재 추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여기 텃밭이 있거든요.
 봉사단체에서 텃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은 농작물이에요.
 여기는 당근밭, 가지밭.
 지금 비트밭도 있는데,
 그건 제 손에 땅이 모자라서 못 그렸네요.





박
귀
조

다들 너무 잘 그려 가지고...
내가 이거 참, 소개하기가 부끄럽네요.
이거 대저생태공원 유채꽃입니다.



박명숙

저는요, 그림보다 글로써 썼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화단에 꽃나무 심은 거랑,

화명 그 생태공원 놀러 간 거랑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 카드를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썼다는 거.

맛있는 거 사 먹고 마지막으로 썼다는 거,

그걸 글로 표현했습니다.

꽃 이름요?

안젤라, 노니아.

그래서 빨간 꽃도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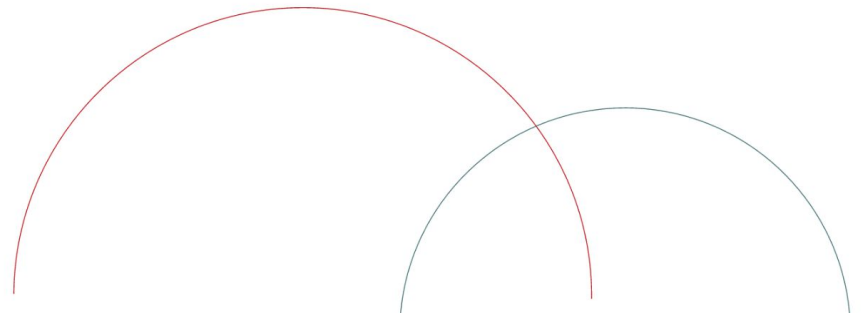
파란 색깔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박
신
숙

미안합니다.
제가 미술을 못 그려 가지고
아이, 선생님.
그러면 내가 미안스러워 안 돼요.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갔던 거 생각나 가지고
끄적거리려 봤어요.
호호, 못 그려 미안해요.





우
평
밭

나도 하라고?

나는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아무 것도 아닌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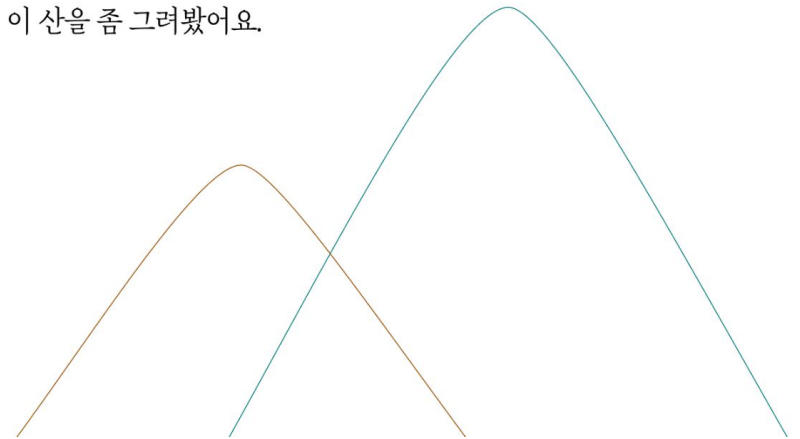
내가 어린 시절부터 하도 산을 좋아하고.

참 이래가 마 들도 좋고, 이게 다 그래 가지고.

내가 보는 거 내가 겪은 거.

그 들판에 나무가 서 있는 거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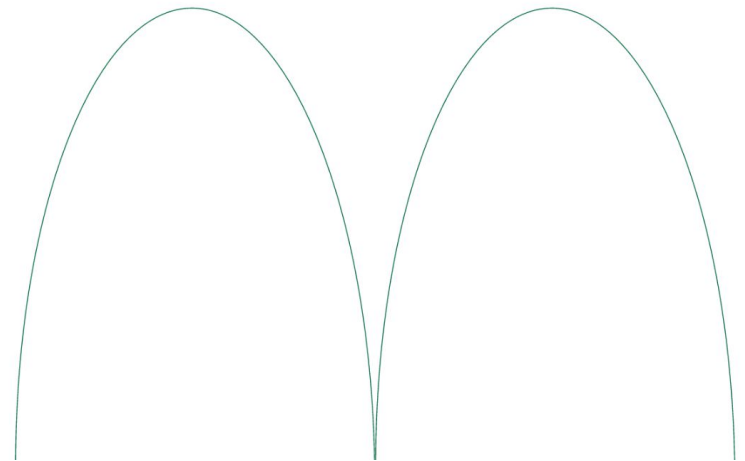
이 산을 좀 그려봤어요.



우정현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추억 말고
 최근에 보석 십자수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때그때 모아 가지고,
 계속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초록은 보석 십자수 색깔은 아니고,
 초록색이 있어서 토끼를 초록색으로 그려봤어요.





이
재
선

이거는 문득,
아까 저기에 아기들이 그림 그린 걸 보고,
엄마 아빠 생각이 퍼뜩 나는 기라.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내가 말이거든요.
그래 꽃밭에 앉아 막 채송화 심고, 봉숭아 심고....
이렇게 하던 것이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려봤어요.



정
귀
자

이

꽃은요,

저희 모임에서 꽃 심은 거 그렸고요.

하트는 전부 다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가자는 뜻으로

하트를 그렸습니다.

이거는 나비.

나비 이거는 그냥 내 마음에

노란 나비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린 거예요.



정은서

저는 비 오는 날
 화명동 생태공원에 가서
 거니는 풍경을 그렸어요.
 누구 누구랑 걸었냐면...
 (수줍게 웃으며) 일행이요.



항
오
덕

저는
나무에
물 주는
그림입니다.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내
생각대로
그렸습니다.



황
청
자

제가
산에
올라갔는데
바위도 있고
공기가
맑고
해가
나서.

마
음

우리의 두 손은

우리가 마음먹은 것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보조하기도 하고,

왼손이 오른손을 돕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른손이 왼손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지?”

왼손이 말했습니다.

“난 가만 있고, 넌 나를 그리면 되지.

마음이 간섭하지 못하게 마음을 모델로 삼으렴.”

살금살금 얘기를 엿듣던 마음은 꿈쩍없이

오른손 화가의 모델이 됐습니다.

오늘 남산정 작가들의 왼손이 스케치북이 되었습니다.

오른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멋지게 꾸며나갑니다.



김동달

마그리다 보니
이래 됐어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리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김
선
화

저는
내 집 갖는 게
꿈인데,
그냥 내 꿈을 한번
실현해 봤습니다.
좀 화려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김은숙

그냥
여기 오는 길이
즐겁다는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즐거워요.
하하,
별 뜻 없어요.



박
귀
조

이
손가락
색깔만큼
좀 밝게
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그렸습니다.



박
명
숙

저는

노후의 꿈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은 꿈이었는데,
지금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손가락에다가
한번 걸어와 봤습니다.



박
신
숙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우
병
팔

이
계

내 마음이다, 마음.
내가 항상 어디 나무만 있는 곳이라면
쫓아가는 사람인데,
그 나무를 바라보면
참, 하늘도 쳐다보고
풍경도 쳐다보면
참 좋아요.
이 그림이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현

저는
그리다
보니까,
여행 가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재
선

예뻐요?

이건 왜 그렸냐면,
문득 생각나는 게
제작년에 매몰도 갔거든요.
그래서 여름도 다가오는데,
아따 한 번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배도 그리고,
갈매기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해도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그려봤어요.



정
귀
자

저는
글로
표현해봤어요.
사랑,
그리움,
이렇게 그걸로
표현해봤는데요.
내가
이 다섯 가지를
전부 다
지금부터 실천해가면서
다 살 거예요.



정
은
서

저는
날씨
좋은 날
언니를
만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그렸습니다.



황
오
녀

늘어서나마
봉숭아물도 들여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당에 다니기 때문에
성당 반지를 그렸고요.
또 내가 시계를 찾기 때문에
시계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나고 나무가 있고,
이렇게 화단처럼
내가 그려봤습니다.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황
청
자

—
별
로

할

말
이

없
어

요

나의 원순

발행일 : 2022년 12월 7일

발행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86-9

T.051-342-8206 <http://www.nsjswc.co.kr>

기획·진행 : 비클리프, 배길남, 서진

어시스트 : 김민우

디자인 : 비온후

ISBN 979-11-981294-0-6 0381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와 출판인의 허락없이
이 책의 내용을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천권도서관스토토리’시리즈는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북구의
지원을 받아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과 진행되었습니다.



김동달

김선화

김은숙

박귀조

박명숙

박신숙

우병팔

우정현

이재선

정귀자

정은서

황오녀

황청자

